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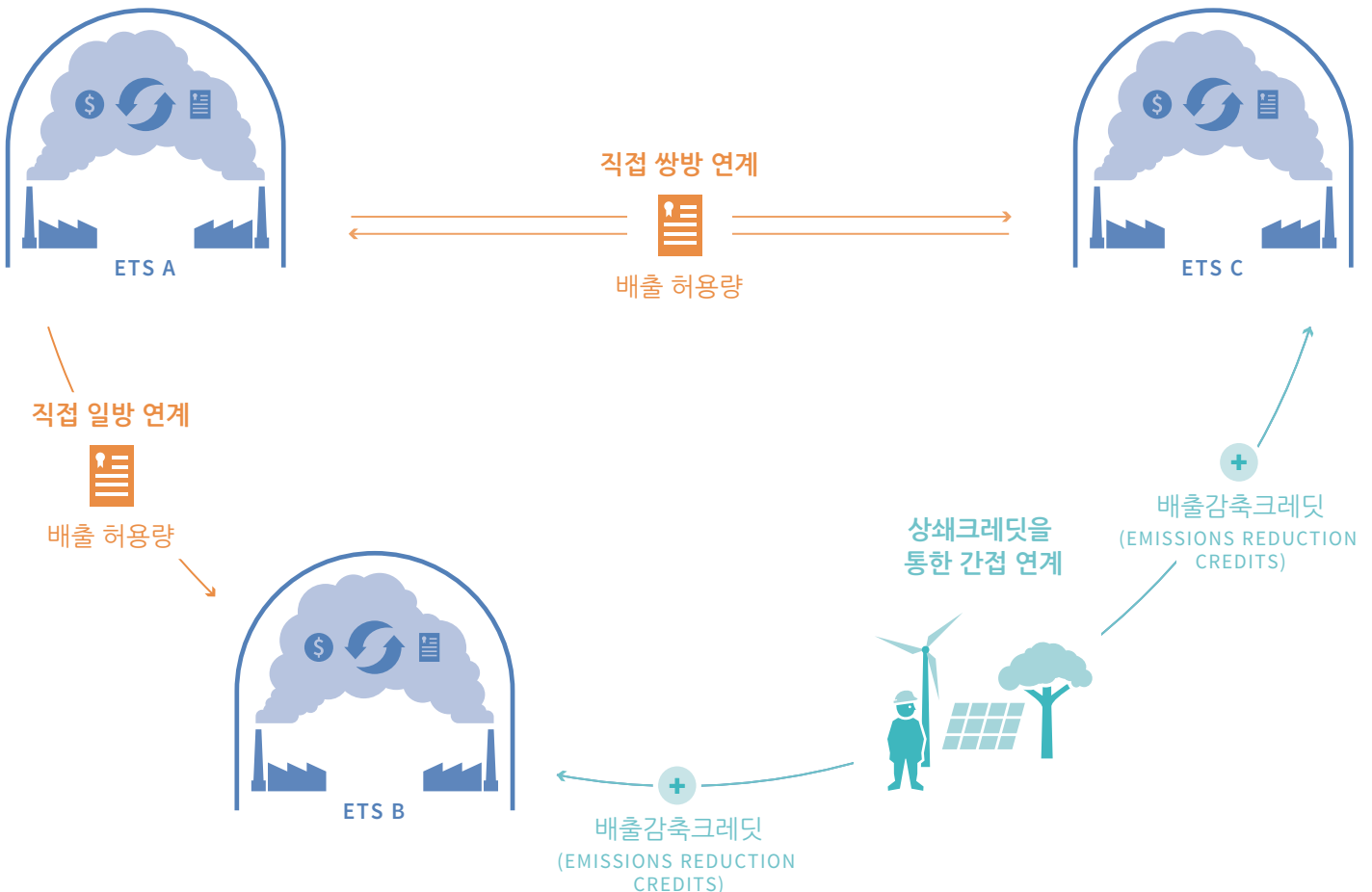
국제 탄소 시장을 향해: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배출권 거래제(ETS)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수단이다. 이 제도는 ‘총량거래방식(Cap and Trade)’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하나 이상의 경제 부문에 배출 상한(cap)을 설정한다. 이 부문에 속한 기업은 배출량 1톤당 하나의 배출권을 가지며, 배출권을 양도받거나 구매할 수 있고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다. 이것이 ‘총량거래방식’의 ‘거래(trade)’이다.



배출권 거래제(ETS)의 주요 장점은 다른 지역의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하여 더 크고 유연한 탄소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ETS 규제 대상 기업은 연계를 통해 다른 지역의 배출권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준수할 수 있다. 거래제 간에 연계되면 가격이 통일되어 단일 배출권 거래 가격이 형성된다.

연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방 연계에서는 A 거래제의 기업이 B 거래제에서 생성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쌍방 연계에서는 연계된 시장에서 양방향으로 배출권이 거래될 수 있다. 연계는 다른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 ETS가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동일한 상쇄크레딧(offset crediting system)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연계 이유

ICAP의 한 가지 핵심 목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서로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활한 국제 탄소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연계의 장점

- 1 연계를 통해 잠재적으로 저렴하고 더 많은 배출량 감축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감축 비용이 감소하고, 정부는 좀 더 과감한 기후 목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 2 또한 경쟁의 우려가 줄어들고, 현재 동일한 탄소 가격에 직면한 연계 시장 내의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 3 연계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다. 더 많은 참여자가 배출권을 구매 및 판매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규모가 커진 탄소 시장은 상품 가격 또는 환율 급변과 같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 4 거래제 간 연계는 기후 변화를 향한 리더십을 잘 보여주며, 국제적 협력을 장려한다.

하지만 연계 시의 문제도 존재한다. 정부는 연계를 위해 자국의 ETS 계획을 수정해야 하며, 공동 시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 자주권을 일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이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자국에서 환경 문제 해결 조치를 취하기보다 타국의 탄소 절감 노력에 금전적 지원을 하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1



2



3



4

전 세계적 연계

2014년 캘리포니아와 퀘벡이 ETS를 연계했다. 온타리오는 해당 ETS가 운영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사이타마현이 2011년부터 공동 탄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 탄소 시장 역시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2007년부터 EU ETS에 참여했고, 스위스와 EU의 연계 협상도 2016년 1월 타결되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U

동경 및 사이타마

퀘벡 및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참여 예정)

스위스 및 EU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정보: ICAP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은 배출권 거래의 모범 사례에 중점을 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국제 포럼입니다. ICAP의 세 가지 중심축은 기술적 대화, 지식 공유, 역량 강화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ICAP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ICAP 지도](#)를 살펴보거나 트위터 [@icapsecretariat](#)에서 ICAP를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